

# 교사도 학부모도 “추가 개학연기 필요”

### 교육부 내일 최종 결과 발표 교육감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광주·전남교육청 개학 준비 방역·온라인 수업 기준 마련

정부가 31일까지는 유치원과 초·중·고의 다음 달 6일 개학 여부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비한 교육 현장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정세균 총리 주재 사·도 교육감 간담회와 교육청 자체 영상 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개학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연기나 온라인 개학 등 최종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학교운영 매뉴얼’을 제작, 학교에 배포했다. 영역별로 세부화된 개학준비 점검표, 시기별로 나는 개학 전후 점검표, 담당자별로 구성된 개학일 실천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해 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이동을 최소화해 접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격리나 공간 폐쇄 기준 등도 상세히 담겼다.

개학 때까지 비축용 보건마스크 62만장, 보급용 마스크 26만장, 면마스크 4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물과 개인물병, 컵 등을 학생 개인이 따로 준비할 수 있게 안내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신학기 개학 준비 지원단을 구성해 4월 6일 개학전 모든 학교에 대한 방역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물품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개학 후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개학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따른 교육 현장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Google) ‘클래스룸’과 마이크로소프트(MS) ‘팀즈’를 보다 쉽게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전남 에듀테크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남교육청은 또 가정에 온라인 기기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의 실태를 파악해 온라인 기기를 대여하거나 인터넷 사용 환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과는 별도로 지역 사회와 학부모 사이에선 교육 당국이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거나 전면 온라인으로 개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교를 개학했다가 학생·교직원·학부모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나오면,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외에도 온라인 개학 시 한글을 다 못 배우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처럼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 학생들에 대한 대

책과 중간고사 등 평가 공정성 마련, 고3 학생부 마감일·수능 일정 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개학을 추가 연기할 경우 대입 수능 등 학사일정의 총체적 차질과 혼선이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감내할 수밖에 없고 교육 당국과 학교, 학부모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흐름으로 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온라인 원격 수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보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유치원 긴급방역 교육부가 초·중·고 개학의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육군 제31보병사단 현장지원팀이 광주시 동구 한 유치원에서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서구 벚꽃 구경 명소 운천호수공원 목교 통제

광주시 서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벚꽃 명소인 운천호수공원의 나무다리를 통제하고 불법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나무다리는 다음달 5일까지 통제되며, 불법상행위 단속은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5개 자치구·공공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

### 재택근무·점심 3교대·서면보고

광주시 5개 자치구와 공공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사 내부에서 직원들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 출장 연기 등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서구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사무실의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을 분배,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구는 감염에 취약한 입

신부와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에 편성했다. 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시간대별로 나눠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내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해외 여행 경력이 있는 직원은 출근을 금지하고 출장을 연기토록 했다. 회의와 업무보고 역시 영상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타 부서간 업무협의를 전화·이메일·메신저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할 시 가급적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장거리 출퇴근 직원과 임신부 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하

고, 나머지 직원들도 시간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남구와 북구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 민원창구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직원들에게 외출·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추진된다.

광주시 북구는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수막·포스터·SNS 등을 통해 손씻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 농어촌 섬 교육 발전특별법·마을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전남교육청, 교육 현안 총선 20대 공약 제안

전남교육청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섬 교육 발전특별법 제정과 마을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20대 공약을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국회의원 후보등록을 마친 도내 10개 선거구 45명의 후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 교육 분야 공약제안서’를 발송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 분야 공약은 ▲농산어촌과 섬 학교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유치원의 ‘유아학급’ 명칭 변경과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내집 앞 유아초등학생 돌봄 센터 구축 등을 담았다.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 ▲마을

복합 교육문화시설과 창의융합 교육체험관 구축 ▲교사 정원 배치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미래교육협력센터 구축 ▲지자체 농어촌 유학센터 설립 등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20대 공약에 대해 각 후보자들이 해당 선거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후보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전남의 미래는 결국 교육에 달려 있다”며 “농산어촌과 섬 학교 지원 강화,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총선 과정은 물론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금호평생교육관, 광주교육청에 면 마스크 220개 기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 금호평생교육관이 광주교육청에 수제 면 마스크 220여 개를 기부했다.

수제 면 마스크는 금호평생교육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홈패션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했다.

이 마스크들은 광주지역 특수학교에 전담대 장애학생들의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효정 금호평생교육관 운영팀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들었다”며

“장애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을 30일부터 4월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일회용 마스크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25개교 학부모회가 참여한다. 제작된 면 마스크는 해당 학교와 지역 내 취약계층 등에 기부해 착한 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북구 ‘민생경제활성화 대책본부’ 출범

### 코로나19 경제위기 적극 대응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북구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본부’를 출범해 경제위기 대응에 나선다.

북구는 “중앙정부, 광주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공유하고, 구 자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본부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북구는 대책본부를 통해 이달부터 23개 부서·27개 동이 참여해 경제지원, 생계지원, 행정지원, 생활지원 등 4대 분야 8개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영자금 지원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로 특례대출’과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계긴급생계비,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등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접수받아 위기가구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고, 착한 임대료 참여 임대인에게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 최대 100만 원 감면, 구 소유시설 임대료 인하, 자치구 공공요금 동결 등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북구는 지난 25일 시장 상인회와 5대 전문거리 상인회 대표, 26일 외식업, 숙박업, 관광업, 학원연합회 등 8개 지역 소상공인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